

연예&TV

데뷔전 이름값 했으니 이제 9명 밥값 해야죠

스타 포커스 '국민돌'을 꿈꾸는 무서운 신인 제국의 아이들

이정연 기자 annoy@donga.com

"9명이 먹는 밥값을 제대로 하는 그날까지 뛰어야죠." 신인그룹이 가요계에서 데뷔하자마자 바로 주목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이들, 제국의 아이들은 데뷔전부터 팬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름값을 한 '특별 케이스'다. 제국의 아이들은 1월 중순 내놓은 첫 싱글 앨범 '마젤도브'로 현재 방송3사의 가요프로그램과 각종 온라인음악차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은 연습생 시절 모습, 그룹 결성과정, 전국을 돌며 길거리 공연을 하는 장면 등이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공개되면서 '전국구스타'로 주목을 받았다. 방송 이후 '로드(Road)'란 별명과 함께 리더 문준영을 비롯해 케빈 황광희 시안 김태현 정화철 하민우 박형식 김동준 등 아홉 명의 멤버 모두 팬 카페까지 만들어졌다. 연습생으로 평균 5년을 기다렸고, 이후 길거리 공연으로 1년이나 전국을 누볐다. 하지만 아직도 제국의 아이들은 "같이 길이 멀다"며 바짝 속도를 낼 준비를 한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떼 거죠. 5년 동안 준비한 것을 다 보여 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

민돌'이 될 때까지 달려갈 겁니다."(문준영) 힘든 준비 기간을 거쳤지만 제국의 아이들은 지금도 평균 3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춤을 보여주지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면 새벽 2~3시예요. 화장실은 하나인데 멤버 9명과 매니저 형들까지 11명에서 씻고 준비하느라 더 시간이 길어져요. 가끔은 30분 자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하하하."(황광희) 제국의 아이들은 13명으로 이루어진 슈퍼주니어보다는 멤버 수가 적다. 하지만 9명이라는 대가족이다 보니 그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다. "지방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서 술을 술을 출발한 후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9개의 우물을 시켰는데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야 멤버 한 명을 빠뜨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워낙 잘 먹어서 한 번 식사할 때마다 밥값이 장난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날 수입은 먹는 것으로 회포를 푸는 것 같아요."(박형식) 제국의 아이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대접도 달라졌다. 9명 모두 한 차에 타고 움직이다가 최근 한 대가 더 생겨 편해졌다. 그리고 스타들만 찍는다는 휴대전화 광고도 최



"로드"에서 '국민돌'이 될 때까지 9인조 신인 남성그룹 제국의 아이들. 2010년 신인상을 타고 '로드'는 포부를 밝혔다. 아홉줄 왼쪽부터 김태현 박형식 하민우 두 번째 줄 왼쪽부터 문준영 황광희 케빈 김동준 맨 위 왼쪽부터 시안 정화철. 김정은 기자 won@donga.com

근 촬영했고, 이밖에도 CF 러브콜이 넘친다고 자랑이다. "1월에 데뷔하면서 계획도 크게 잡았어요. 2010년 신인상을 타는 것이 목표예요. 지난해는 MAMA 시상식 식전 행사인 레드 카펫만 참석했는데, 당시 신인상을 탄 슈퍼팀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제국의 아이들로 활동하고 싶어요. 길고 오래가는 댄스 그룹요. 신화 선배들에 이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케빈)

연예 뉴스 스테이션

●한지혜, 中 드라마 '천당수' 여주인공 캐스팅 한지혜가 중국 드라마 '천당수'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11월 중국 CCTV에서 방송되는 26부작 '천당수'는 중국 백화상 최고영화상을 4회 받은 황젠중(黃建中) 감독의 작품으로, 중국 전설의 자수 천당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한지혜는 어머니를 찾아 중국에 온 한국 여인 전체의 역할을 맡았다.

●박정아 '국제변호사'로 6년만에 드라마 출연 주얼리의 멤버였던 박정아가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로 6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3월31일부터 방송하는 '검사 프린세스'(극본 소현경·연출 진혁)는 김소연, 박시후 주연의 드라마로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초인 검사 마해리가 여러 사건을 거처며 진짜 검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박정아는 극 중 국제변호사 제니 안 역을 맡았다.

●손예진 이민호 '개인의 취향' 드라마 포스터 공개 MBC 새 드라마 '개인의 취향'의 두 주인공 손예진·이민호의 모습이 24일 공개됐다. 공개된 포스터(사진)는 침대 위에서 자신을 동성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손예진과 그녀가 어색하지만한 이민호의 모습이 담겼다. 대본 연습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은 동거 콘셉트에 맞춰 침대, 소파 위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촬영 했다.

●류시원 日서 무료 팬미팅... 양표 200만원 넘어 류시원이 일본에서 연 무료 팬미팅의 양표가 200만원이 넘었다. 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팬클럽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팬들을 무료로 초대해 팬미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1200명이 최종 결정된 이번 팬미팅은 30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D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KBS 02) 781-1800 MBC 02) 780-0015 SBS 02) 2113-5000 OBS 032) 670-5000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TV channels (KBS 1, KBS 2, MBC, SBS, OBS, 지역민방)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Table titled '랭킹 뉴스' (Ranking News) listing various news items and their authors.



Table titled '케이블' (Cable) listing various cable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Complex block containing a 'Weather' section with a forecast table and a 'Sports Donga' logo with contact information.